

전도서 : 순간의 지혜 vs 영원한 지혜

1:2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지혜는 세상에서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칙을 줍니다.

그러나 각각의 시대마다 “삶의 지혜”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해 왔습니다.

1. materialism (물질주의)에서는 : 인생은 모든 자원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

life is about gathering and using resources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2. existentialism (실존주의)에서는 :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life is what you make of it.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또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만듭니다.

3. positivism (실증주의)에서는 : 인생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life is what works the best for you.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제일 최고인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

4. Post 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 인생은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감정적, 그리고 심리적인 총계라고 말합니다.

life is some total of your history, culture, historal emotinal, psikologis

이 말은 무슨 말이나면,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의 역사, 문화, 감정, 심리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드리고 개발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시대마다 “삶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에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7)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일들이 행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작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의하는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정의로운 자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 전도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one who gathers people” –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전도자, 설교자, 선생님, 지혜자, 인생을 고민하는 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사람 “Qohelet”은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1,12,16](#); [2:4-9](#); [7:26-29](#); [12:9](#); cf. [1Ki 2:9](#); [3:12](#); [4:29-34](#); [5:12](#);
[10:1-8](#)).

- * 전 1:1 =>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 * 전 1:12 =>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 * 전 1:16 =>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나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전도서에서는 “지혜”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간의 지혜”와 “영원한 지혜”입니다.
“순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헛되다’입니다.
전도사에서 38회 나타납니다. (1:2, 12:8, 1:14, 2:1,11,19,21,23; 3:19, 4:4,8,16;
5:10; 6:2,9 ; 7:6; 8:10,14, 등)
그리고 “헛되다”는 말을 앞과 뒤에 넣는 것입니다. (1:2, 12:8) – inclusio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 “순간의 지혜” 즉 성공, 행복, 위치” 등 모두 순간적이고
헛됩니다.

그러면 “헛되다”는 무슨 뜻인가요?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קָבֵ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은 단순히 헛되다는 뜻만 아니라, 공허 (emptiness), 숨 (breathing), 수증기 (steam), 연기 (smoke)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잡을 수 없기, 빠르게 지나가기,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어될 수 있는 중립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순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즉 성공, 지혜, 세상의 기쁨, 위치, 행복, 등등은 순간적이고, 중잡을 수 없는 것들이고, 헛되다고 말한다.

1. (전. 1 : 12-15) => 전도자는 인간의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2. (전. 1 : 16-18) => 인간의 지혜, 지식 추구하는 것들도 바람 잡으려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
3. (전. 2 : 1-11) => 기쁨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
4. (2 : 12-17) => 수고가 의미가 없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1. 시간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전도서 1:5-11을 보면 인간의 모든 것은 오래 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도 다 지날거고 잊어지는 것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다시 떴다가 늘 그냥 지나갑니다.(1:5)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1:11)을 보면 결국은 시간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지울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잊혀지게 만들겁니다.

1:11=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결국, 무익하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게 만듭니다.

2. 죽음을 가지고 설명해줍니다.

전도서 11:7-12:7을 보면 우리가 누구든 상관없이.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인 사람, 풍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위대한 이퀄라이저라고 부릅니다. 죽음 앞에 우리 모두 평등하다.

모든 것은 헛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계속 나오지만 전도서 9:2-4의 설명이 제일 잘 합니다.

2.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3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4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5.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6.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기여할 자리가 없다.

전도서 8:7-8

7.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8.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 주지 않는다.

전도 8:16-17

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5-6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5.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

6.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 시간과 죽음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자여도, 성공해도, 똑똑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제하십니다. (전 8:7-8)

그러려면 전도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새로운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제목에서 이것은 “영원한 지혜”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혼란스럽고, 한 순간이고,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전 9:1)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헤벨’을 지우실 것입니다.

.....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 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헤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Acceptance” - “받아드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입니다.
그것은 “자연, 가족, 우정, 맑은 날, 일상 등등”입니다.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것입니다.
가족과 일상, 맑은 날, 우정,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9:7-10)

7.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8.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9.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10.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전도 8:15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전 7:13-14

13.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14.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전 11:7-8a, 9

7.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8.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9.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그래서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지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감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지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1: 9.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그러므로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숨”과 “수증기” 처럼 잠깐이고,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힘을 다하고 잡으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일상의 모든 것을 받아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연, 일상, 가족, 맑은 날, 직장 등”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